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살인자 박순관 구속수사 촉구 범시민 서명운동

23명의 노동자를 한순간에 죽음으로 내몬 에스코넥·아리셀 대표이사 박순관이 아직도 구속되지 않은 채 거리를 활보하고 있습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이미 진행된 수사 결과만 가지고도 충분히 구속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수 있지만 이를 미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속수사를 미루는 사이 살인자 박순관은 선입한 대형 범무법인 등을 통해서 진실과 정황을 은폐, 축소, 조작하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희생자 가족은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진상규명의 첫걸음으로 살인자 박순관의 구속수사를 요구합니다. 진실을 가리며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제대로 된 사과 한번 하지 않은 박순관에 의해 저질러지는 제2, 제3의 범죄 행위를 막기 위해서라도 그는 지금 당장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받아야 합니다.

참사가 발생한 지난 6월 24일부터 지금까지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에 깊은 관심과 연대로 함께 하며, 죽음과 차별이 없는 안전한 일터와 안전한 사회를 염원하는 노동자, 시민의 이름으로 살인자 박순관에게 구속수사와 함께 엄중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십시오!

- 서명운동 기간 : 8월 20일(화) ~ 9월 3일(화)까지 2주간 진행
- 서명 제출 : 노동부, 경찰청에 서명 전달

연번	이름	주소(읍, 면, 동까지만)	서명
1			
2			
3			
4			
5			